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3회 대학(원)생 농업 우수논문상” 공모전 투고원고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농업인 학습지원 방안시스템 개발

2006년 6월

길대환, 전영욱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및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농업인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농업환경의 변화,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성인학습자로서의 농업인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농업인의 학습지원 방안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방향 지워야 하는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및 농업인의 학습특성 구명을 위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② 농업인력의 고령화, ③ 농업인력의 부녀화, ④ 도시노동자와의 소득격차 심화, ⑤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 미흡 등이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인적·물적·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농업인들은 농업교육의 문제점으로는 ① 실습 기회 부족, ②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 ③ 교육훈련 홍보 부족, ④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⑤ 교육훈련 시기와 기간 부적절, ⑥ 사후관리 체제 미흡, ⑦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즉,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비효과적인 농업인 교육훈련 과정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보통수준의 농업교육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업인들의 교육저해 요인을 보면, ① 교육훈련 참여 시간 부족, ② 교육훈련 장소의 거리, ③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④ 교육 안내 정보 부족, ⑤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농업교육의 패러다임은 지식을 전달받고 구성하는 수요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중시하고, 개방적이고 연계된 통합구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인 교육훈련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농업인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농업인들은 주로 경영지식, 생산·유통·가공 기술 및 영농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농업인들의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학습요구)는 마케팅, 정보획득, 영농일손관리, 경영관리, 사업기반 조성 등 주로 경영일반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내용 영역에서는 경영일반 및 생산·유통·가공 기술에 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농업인은 주변의 전문가에게 묻는 학습방법,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작목반이 팀이 되어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주로 선호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학습인원은 20~40명 정도의 '중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10명 내외의 소규모, 개별 순으로 선호하였다. 따라서 농업인 개인에 대한 학습컨설팅 뿐만 아니라 작목반 혹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에 대한 학습컨설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경로는 농업관련 기관 공무원, 우편 발송된 홍보물, 신문 및 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정보를 전파하고 공유시키기 위한 매개물로서 이러한 수단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기존의 정부 혹은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농업인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개별 및 팀 단위 농업인에게 적합한 학습내용 및 정보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습지원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및 범위	3
4. 연구 절차 및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7
1. 농업환경의 변화	7
2. 농업교육 패러다임 변화	16
3. 성인학습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	19
III. 농업인의 교육요구 및 학습적 특성	22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2
2. 농업인 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25
3.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	28
IV. 논의: 농업인 학습지원시스템 개발방안	32
V. 결론 및 제언	34
1. 결론	34
2. 제언	35
참고문헌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업·농촌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에 대한 기피현상, 사회적인 농업 천시 풍조, 복잡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가격과동 등의 내적인 문제와 함께 WTO, DDA,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농업 인력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해 노동인력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김진모, 2006). 이처럼 급속한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역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의 시대로,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즉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수준 높은 재교육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농업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업의 내적·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즉 농업 신규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고, 기존의 농업 인력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2004)가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후계농업인 선정 등 농업 인력에 관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 저하는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업 인력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그 중 한 가지이다. 실제 농업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많았지만, 농업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으며,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도 미흡하였다(김진모, 2006).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교육훈련 운영재정 부족과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낙후,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교육훈련 장소 및 실시 시기와 기간이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마상진, 김영생, 2005).

이러한 농업교육의 비효과적·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농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요자 중심성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산기술 중심의 집합식 및 이론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훈련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수준 및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농업교육은 정부 혹은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및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농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방안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정부 혹은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학습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및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농업인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우리나라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농업 인력의 경쟁력 및 성장을 사회 통합적 학습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내적외적인 어려움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학습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을 구명한다.

둘째,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학습지원시스템 개발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농업환경의 변화를 고찰한다.

- 우리나라 농업인력 변동추이를 파악한다.
- 우리나라 농업경영 변동추이를 파악한다.

■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찰한다.

- 지금까지의 농업교육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 농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 성인학습자로서의 농업인의 특성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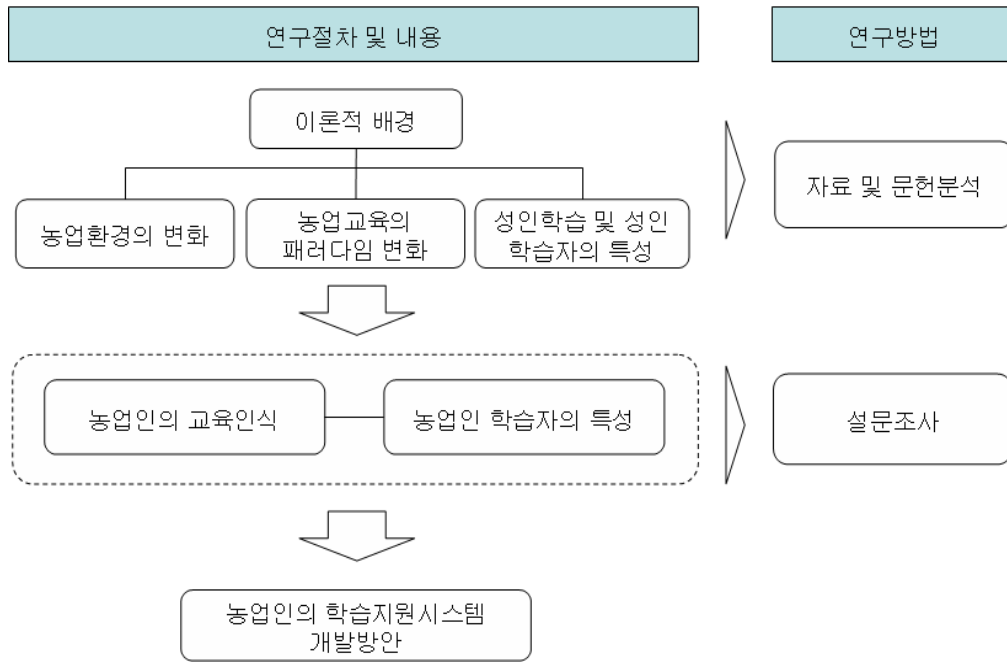
■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및 농업인 학습자 특성을 분석한다.

-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 농업인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 농업인 학습지원시스템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절차 및 내용, 연구방법은 [그림 1]과 같았다.



[그림 1] 연구모형

가. 문헌연구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농업인 학습자의 특성을 모색하기에 앞서 농업환경의 변화,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성인학습자로서의 농업인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농업인의 학습지원 방안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방향 지워야 하는가를 도출하였다.

농업환경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농업인력 및 환경 관련 자료 및 문헌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인력 변동추이, 농업경영의 변동추이 및 농촌의 정보화 수준 등 거시적인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및 새로운 농업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선행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성인 학습자로서의 농업인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성인학습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나.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및 농업인의 학습특성 조사

1) 조사 대상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및 농업인의 학습특성 구명을 위한 설문 조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는데, 첫째는 농업인교육기관 담당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둘째는 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곳은 대도시 인근지역인 남양주와 농촌지역인 홍천이었다.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사항목은 마상진, 김영생(2005)의 연구와 정상택(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농업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육 참여저해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은 교육 참여 목적, 학습내용 요구, 학습형태 요구,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수집

농업인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 수집은 직접조사의 경우 2006년 1월 21일과 23일 각각 남양주와 홍천을 방문하여 영농설계교육을 받고 있는 농업인 중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남양주 농업인 87명, 홍천의 농업인 119

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간접조사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우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간접조사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품목단체 등 397개의 농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당 설문지를 5부씩 총 1,985부가 발송되었으며, 그 뒤 34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17.2%), 그 중 불성실응답 5부를 제외한 366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572부였으며, 그 중 농업인 교육기관을 통한 간접조사가 전체의 64.0%였으며, 직접조사는 36.0%였다. 그리고 직접조사 중 남양주 농업인은 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2%였으며, 홍천의 농업인은 119명으로 20.8%였다(<표 1> 참조).

<표 1>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구분		빈도	백분율(%)
직접조사	남양주	87	15.2
	홍천	119	20.8
간접조사	농업인 기관	366	64.0
합계		572	100.0

4)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분석 자료는 Window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 를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업환경의 변화

현재, 농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에 대한 기피현상, 사회적인 농업 천시 풍조 등의 내적인 문제점과 함께 WTO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본적인 농업인의 학습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농업인력 변동추이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양적 변화를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자와 농림어업 취업자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어업 취업자는 1970년 이후 2005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표 2> 참조). 특히,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를 보면 1970년에서 2005년까지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는 거의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산업 취업자 중에서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의 비율은 1970년 약 50.4%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 8.4%로 나타났다.

<표 2> 전체 산업 취업자 및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변동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9월)
취업자 (천명)	전체 산업	9,745	11,830	13,706	14,970	18,036	20,377	21,156	23,048
	농림 어업	4,916	5,425	4,658	3,733	3,292	2,541	2,243	1,940
농림어업 취업자비율(%)		50.4	45.9	34.0	24.9	18.3	12.5	10.6	8.4

자료: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주요 선진국들의 지난 30여 년간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변동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보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전에 이미 유사한 감소 경향을 보였다(<표 3> 참조). 미국·영국·독일·호주의 경우 1970년에 이미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전체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모두 4%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03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1970년에 비해 각각 9만 여명, 6만 여명 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아, 1970년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의 97.5%, 86.9%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일본·이탈리아는 1970년에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전체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선이었지만 2003년 현재 모두 5%이하 수준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한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발전 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약 20년 앞서서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 를 보면, 1960년에는 전체산업취업자 중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절반을 넘었지만, 1970년에는 38.9%, 1980년에는 30.7%, 1990년에는 23.9%, 2003년에는 15.8%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감소의 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편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농업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우리나라의 농가호수는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80년에 2,155천호, 1990년에 1,767천호, 1995년에 1,501천호, 최근 2004년에는 1,240천호로 줄어들었다. 이에 농가호수는 1960년대 전체 총 가구 수의 절반이 넘는 53.7%였으나, 2004년에는 7.1%로 감소하였다. 또한, 농가 인구수 역시 1960년 전체 총인구수의 58.3%였으나 2004년에는 7.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연령, 농업경영주 연령의 지난 20~30여 년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농업인력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었다(<표 5> 참조).

<표 3> 주요 국가별 전체 산업 취업자 및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변동추이

(단위: 천명)

국가구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미국	전체 산업 취업자수(A)	65,778	71,088	78,678	85,847	99,303	107,150	118,793	124,900	136,891	136,485
	농림어업 취업자수(B)	5,584	4,476	3,567	3,507	3,529	3,338	3,395	3,592	3,538	3,479
	B/A(%)	8.5	6.3	4.5	4.1	3.6	3.1	2.9	2.9	2.6	2.5
영국	전체 산업 취업자수(A)	23,660	24,778	24,388	24,681	24,817	24,229	26,770	26,039	28,031	28,572
	농림어업 취업자수(B)	1,118	952	782	687	662	622	606	530	429	357
	B/A(%)	4.7	3.8	3.2	2.8	2.7	2.6	2.3	2.0	1.5	1.2
독일	전체 산업 취업자수(A)	25,954	26,418	26,169	25,285	26,528	26,062	27,988	3,5780	36,236	35,616
	농림어업 취업자수(B)	3,623	2,876	2,262	1,773	1,403	1,251	1,070	1,127	959	900
	B/A(%)	14.0	10.9	8.6	7.0	5.3	4.8	3.8	3.1	2.6	2.5
프랑스	전체 산업 취업자수(A)	18,595	19,540	20,328	20,871	21,443	21,146	22,081	21,954	23,687	24,257
	농림어업 취업자수(B)	4,180	3,473	2,751	2,152	1,821	1,530	1,262	1,014	921	892
	B/A(%)	22.5	17.8	13.5	10.3	8.5	7.2	5.7	4.6	3.9	3.7
일본	전체 산업 취업자수(A)	44,360	47,300	50,939	52,227	55,360	58,070	62,495	64,566	64,463	63,160
	농림어업 취업자수(B)	13,400	11,130	8,867	6,612	5,766	5,090	4,513	3,674	3,255	2,930
	B/A(%)	30.2	23.5	17.4	12.7	10.4	8.8	7.2	5.7	5.0	4.6
이탈리아	전체 산업 취업자수(A)	20,269	19,432	19,218	19,491	20,313	20,508	21,215	19,851	20,874	21,820
	농림어업 취업자수(B)	6,611	5,103	3,878	3,261	2,899	2,296	1,863	1,333	1,120	1,075
	B/A(%)	32.6	26.3	20.2	16.7	14.3	11.2	8.8	6.7	5.4	4.9
호주	전체 산업 취업자수(A)	-	4,629	5,395	5,842	6,281	6,676	7,808	8,219	8,990	9,396
	농림어업 취업자수(B)	-	454	434	398	407	417	427	402	448	377
	B/A(%)	-	9.8	8.0	6.8	6.5	6.2	5.5	4.9	5.0	4.0
그리스	전체 산업 취업자수(A)	3,639	-	3,143	3,262	3,531	3,589	3,720	3,820	3,946	3,951
	농림어업 취업자수(B)	1,959	-	1,222	1,084	1,083	1,037	889	780	671	624
	B/A(%)	53.8	-	38.9	33.2	30.7	28.9	23.9	20.4	17.0	15.8

자료: OECD. (2005). <http://www.oecd.org>

<표 4> 우리나라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변동추이

구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농가호수(천 호)	2,350	2,507	2,483	2,379	2,155	1,926	1,767	1,501	1,383	1,240
농가호수비율(%)	53.7	51.7	42.4	35.2	27.0	20.1	15.6	11.6	9.6	7.1
농가인구(천명)	14,559	15,812	14,422	13,244	10,827	8,521	6,661	4,851	4,031	3,415
농가인구비율(%)	58.3	55.1	44.7	37.5	28.4	20.8	15.6	10.8	8.3	7.0

자료 : 통계청(2005). 농업기본통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의 변동추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15~19세, 20~29세 및 30~39세의 취업자는 1975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975년에 각각 702천명(13.2%)과 942천명(18.4%)과 1,177천명(21.7%)에서 2004년 3천명(0.2%)과 33천명(1.8%)과 106천명(5.8%)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50~59세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1970년에 686천명(14.2%)에서 2004년 현재 417천명(22.8%)으로 수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그 비율은 거의 10%정도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1970년에 309천명(6.4%)에서 2004년 현재 960천명(52.6%)으로 증가함으로써 절대수와 구성비에 있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5>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연령 구성비 변동추이 (단위 : 천명, %)

연령(세)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15~19	639 (13.2)	702 (12.9)	229 (4.9)	68 (1.8)	27 (0.8)	5 (0.2)	5 (0.2)	3 (0.2)
20~29	894 (18.4)	942 (17.3)	720 (15.5)	498 (13.4)	262 (7.7)	82 (3.2)	75 (3.3)	33 (1.8)
30~39	1,260 (26.0)	1,177 (21.7)	898 (19.3)	680 (18.3)	553 (16.2)	323 (12.7)	219 (9.8)	106 (5.8)
40~49	1,058 (21.8)	1,180 (21.8)	1,309 (28.1)	994 (26.7)	761 (22.3)	500 (19.7)	404 (18.0)	306 (16.8)
50~59	686 (14.2)	962 (17.8)	979 (21.0)	921 (24.7)	1,064 (31.1)	709 (28.0)	553 (24.7)	417 (22.8)
60~	309 (6.4)	461 (8.5)	520 (11.2)	562 (15.1)	751 (22.0)	915 (36.1)	988 (44.1)	960 (52.6)
계	4,848	5,425	4,654	3,722	3,418	2,534	2,239	1,825

자료: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이와 같은 경향은 농가 경영주 연령 변동추이에서도 확인된다. 40세 미만의 경영주 비율은 1970년도에 35.2%였던 것이, 2004년 현재 3.1%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60세 이상의 경영주는 1970년도에 15.2%이던 것이 2004년 현재 59.1%로 높아졌다(<표 6> 참조).

<표 6> 농가경영주 연령 구성비 변동추이 (단위 : 천명, %)

연령(세)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 30	215 (8.7)	212 (8.9)	129 (6.0)	83 (4.4)	37 (2.1)	12 (0.8)	7 (0.5)	2 (0.2)
30 ~ 39	657 (26.5)	564 (23.7)	367 (17.0)	277 (14.4)	221 (12.5)	134 (8.9)	84 (6.1)	36 (2.9)
40 ~ 49	662 (26.7)	677 (28.5)	664 (30.8)	511 (26.6)	373 (21.1)	272 (18.1)	238 (17.2)	182 (14.7)
50 ~ 59	569 (22.9)	567 (23.9)	555 (25.8)	582 (30.2)	584 (33.0)	447 (30.0)	348 (25.2)	286 (23.1)
60 ~ 69	377 (15.2)	357 (15.0)	437 (20.3)	470 (24.5)	403 (22.8)	445 (29.6)	479 (34.6)	449 (36.1)
70 ~ *	-	-	-	-	150 (8.5)	190 (12.7)	227 (16.4)	285 (23.0)
계	2,483 (100.0)	2,379 (100.0)	2,155 (100.0)	1,925 (100.0)	1,767 (100.0)	1,501 (100.0)	1,383 (100.0)	1,240 (100.0)

*: 1970년대부터 1985년까지는 60 ~ 69세에 포함됨

자료 : 통계청. (2005). 농업기본통계 조사.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청장년의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에 유출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여성 농림업취업자의 구성비를 보면 1965년 전체 농림업취업자의 38.7%였으나 197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여 2000년에는 48.5%가 여성이었다. 이는 산업전체의 여성취업자 비율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표 7> 참조).

<표 7> 산업전체 및 농림업의 남녀 구성 비율

년도	산업전체			농림업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965	5,273(65.0%)	2,839(35.0%)	8,112	2,781(61.3%)	1,757(38.7%)	4,538
1970	6,104(63.5%)	3,513(36.5%)	9,617	2,757(58.0%)	2,001(42.1%)	4,756
1975	7,431(63.6%)	4,261(36.4%)	11,691	2,888(57.3%)	2,152(42.7%)	5,041
1980	8,462(61.8%)	5,222(38.2%)	13,683	2,458(55.5%)	1,971(44.5%)	4,429
1985	9,137(61.0%)	5,833(39.0%)	14,970	1,969(55.4%)	1,585(44.6%)	3,554
1990	10,709(59.2%)	7,376(40.8%)	18,085	1,637(52.8%)	1,463(47.2%)	3,100
1995	12,147(59.5%)	8,267(40.5%)	20,414	1,156(50.5%)	1,134(49.5%)	2,289
2000	12,387(58.6%)	8,769(41.4%)	21,156	1,114(51.5%)	1,048(48.5%)	2,162

자료 : 통계청. (2005). 농업기본통계 조사.

농가 경영주의 학력 구성비와 산업전체 취업자의 학력구성비의 변동추이를 비교해보면(<표 8> 참조), 농가경영주의 학력분포 변화의 경우 1980년에는 전문대졸이상 농가경영주는 전체 농가경영주의 약 1.3%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약 3.7%로 학력수준이 조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산업전체 취업자 및 농가경영주 학력 구성비 변동추이 (단위: 천명, %)

년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산업전체	농가 경영주	산업전체	농가 경영주	산업전체	농가 경영주	산업전체	농가 경영주
1980	9,784 (71.5)	1,980 (91.9)	2,986 (21.8)	148 (6.9)	-	8 (0.4)	914* (6.7)	19 (0.9)
1985	8,815 (58.9)	1,720 (89.4)	4,620 (30.9)	182 (9.5)	-	6 (0.3)	1,535* (10.3)	17 (0.9)
1990	8,796 (48.6)	1,537 (87.0)	6,814 (37.7)	198 (11.2)	621 (3.4)	8 (0.5)	1,854 (10.3)	24 (1.4)
1995	7,509 (36.8)	1,258 (83.8)	8,969 (43.9)	206 (13.7)	1,071 (5.2)	10 (0.7)	2,866 (14.0)	27 (1.8)
2000	6,622 (31.3)	1,100 (79.5)	9,325 (44.1)	232 (16.8)	1,579 (7.5)	17 (1.2)	3,630 (17.6)	34 (2.5)

()는 해당년도별 산업전체 및 농업경영주 전체에 대한 비율임

*: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을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2005). 농업기본통계조사

한편 산업전체 취업자의 학력수준과 비교해보면, 1980년 이후 꾸준히 학력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도 중졸이하의 농가 경영주가 전체의 80%수준인데 반해, 산업전체 취업자는 3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나. 농업경영의 변동추이

농가소득을 도시노동자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보면, 1985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5년 도시노동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의 비율은 112.8%로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높았다. 그러나 1990년 97.4%로 역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95.1%, 2000년 80.6%, 2004년 77.6%로 점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표 9> 참조).

<표 9> 도시노동자 가구의 소득과 농가소득 비교 (단위: 천원)

년도	도시노동자 가구 소득(a)	농가소득(b)	b/a×100(%)
1970년	338	256	75.7
1975년	786	873	111.1
1980년	2,809	2,693	95.9
1985년	5,085	5,736	112.8
1990년	11,319	11,026	97.4
1995년	22,933	21,803	95.1
2000년	28,643	23,072	80.6
2004년	37,361	29,001	77.6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를 보면,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있었으며, 80%이상이 2,000만원 이하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5,000만원 이상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2002년 전체 농가의 2.7%에서

2003년 3.1%, 2004년 3.7%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 남짓에 불과하다(<표 10> 참조).

<표 10>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수 (단위 : 가구, %)

판매금액	2002년	2003년	2004년
1000만원 이하	861,011 (67.2)	871,143 (68.9)	820,248 (66.1)
1,000만원 ~ 2,000만원	221,506 (17.3)	199,601 (15.8)	208,842 (16.8)
2,000만원 ~ 3,000만원	100,878 (7.9)	93,476 (7.4)	96,612 (7.8)
3,000만원 ~ 5,000만원	62,566 (4.9)	60,598 (4.8)	68,606 (5.5)
5,000만원 ~ 1억원	24,906 (1.9)	27,929 (2.2)	32,786 (2.6)
1억원 ~ 2억원	7,533 (0.6)	8,830 (0.7)	9,700 (0.8)
2억 이상	2,061 (0.2)	2,854 (0.2)	3,612 (0.3)
전체농가	1,280,462 (100.0)	1,264,431 (100.0)	1,240,406 (100.0)

자료: 통계청. (2005). 농업기본통계 조사.

한편 연도별 PC보유 현황 및 활용 비율을 고찰한 결과 PC보유 및 활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2002년에는 PC를 보유한 농가가 전체농가의 29.4%였으며, PC를 활용하는 농가는 전체의 4.3%였으나 2004년에는 각각 34.9%, 6.7%로 증가하였다. 한편 PC를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2004년 기준으로 전체농가의 28.3%로 활용하는 농가의 4배가 넘었다.

<표 11> 연도별 PC보유 및 활용 비율

년도	PC 미보유	PC 보유		합계	
		PC 미활용	PC 활용		
2002년	904,018 (70.6%)	376,444 (29.4%)	320,912 (25.1%)	55,532 (4.3%)	1,280,462
2003년	844,635 (66.8%)	419,796 (33.2%)	348,185 (27.5%)	71,611 (5.7%)	1,264,431
2004년	807,063 (65.1%)	433,343 (34.9%)	351,115 (28.3%)	82,228 (6.7%)	1,240,406

자료: 통계청. (2005). 농업기본통계 조사.

다. 농업환경 변화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농업환경 변화를 토대로 농업인 학습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취업자 및 농가경영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보다 전문화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즉, 즉각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문제를 넘어서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여 공유할 수 있는 학습자로서의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해야 한다.

둘째, 농업분야 취업자 및 농가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농업경영주의 60%정도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도 23%나 되었다. 그리고 40대 미만은 고작 3% 수준이며, 40대도 15%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을 지원할 때 학습내용 및 학습매체 선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정부 및 농업교육기관에서는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은퇴 및 취미활동 등과 같은 학습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이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매체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셋째, 농업분야의 여성 취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학습의 차별화 및 전문화,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도시 노동자 가구의 소득과 농가 소득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보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WTO 등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직접적인 소득보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학습에 대한 욕구를 정부와 농업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농업인이 느끼는 경제적 격차를 조금이나마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농가경영주의 정보화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농업경영주 중 6%만이 PC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활용범위에서도 정보수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격교육을 설계 및 실행하고자 할 때, 학습대상자와 학습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농업교육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성향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를 말한다(Khun, 1996). 따라서 농업교육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농업교육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성향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한편, 농업인 학습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농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농업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 지금까지의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지금까지의 농업교육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개성보다는 통일성과 획일성을 강조하고, 질보다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 패러다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환 외(2004)는 이러한 농업교육의 기본적 속성을 직업교육 중심, 효율성 강조, 공급자 중심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농업인 교육 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교육은 농업 분야에 종사할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 이유는 농업은 기본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유지, 혹은 지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업교육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농 종사인의 양성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업교육은 농산물의 증산을 통한 식량자급,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증대, 나아가 자영농 및 영농후계자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업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력을 어떻게 하면 시급히 양성하여 공급할 것인가라는 효율성에 집중하였다.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교육내용의 수월성과 같은 질보다는 양, 대량생산을 강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고, 일사불란한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국가가 원하는 농업교육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농업교육은 교육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하기보다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대량생산과 효율성이라는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기초한 결과로서, 농업인 교육자는 국가적으로 결정된 통일된 교육내용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간의 관계는 쌍방향이고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수준이었다.

지금까지의 농업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한마디로 영농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학교농업교육은 영농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농촌사회교육은 농업인 대상의 농업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이는 농업교육의 지향점이 대량화와 획일화, 규격화로 대표되는 산업 지향적 농업 생산에 참여할 능숙한 인력의 육성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이용환 외, 2004).

나. 농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 이 어지면서 사회적 요구는 다품종 소량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다품종 소량화가 갖는 특성은 다양화, 독특함, 개성, 그리고 질적 우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외부(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주어지는 지식만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학생들 혹은 피교육생(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의 교육목표는 지식전달에서 지식구성 혹은 지식창조로 변화해야 하고, 교육주체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용환 외(2004)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농업교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농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선적으로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 다양성 및 통합성을 추구하는 변화 지향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 하에서 농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농업교육은 기존의 중국적 의미가 강했던 직업인 양성 교육 개념에서 계속교육의 개념이 추가된 평생 직업교육의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농업교육은 기존에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가나 지방정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농업교육 수요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교육서비스의 질로 승부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농업교육은 기존의 농촌지도사와 같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에서 지식을 전달받고 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농업교육은 기

존의 교육체제 간 혹은 교육체제 내에서의 폐쇄적이고 단절된 구조에서 개방적이고 연계된 통합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3. 성인학습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

최근 성인교육학자들은 교육개념으로부터 학습개념을 독립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예컨대 Merriam과 Brockett(1997)는 성인학습을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며, 교수-학습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교육자가 하는 일에 대응되는 측면임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계획적이며 우연한 학습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한편 Javis(1995)는 교육이란 제도화된 학습이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책을 읽는 일 속에서 '학습'이 일어나지만 '교육'은 독서지도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이고 계획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육학에서 '교육'을 '학습'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해왔다면,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 학자들에게 있어서 '학습'이란 비단 교육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성인교육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페даго지(Pedagogy)와 안드라고지(Andragogy)의 구분은 비단 학습자 집단의 연령차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수자 의존학습 패러다임으로부터 '학습'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행위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구분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Knowles, 1984). 안드라고지는 기존의 전통적 교육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의 페даго지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칭하여 성인학습자의 자율성, 자기주도성, 경험중심성, 현장중심성 등을 강조하며 등장한 것이다.

아동교육이 주로 한 과목 중심, 학교 중심, 교수 의존 중심, 전일제 중심 학습의 특징을 가진다면 그에 반하여 성인교육이 제시하는 성인학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Knowles, 1984).

첫째, 성인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필요로 하고 흥미를 가지는 바에 의해

배워야 할 동기를 획득한다. 결국 경험에 기반한 필요와 흥미야말로 성인학습활동을 조직화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성인학습은 생활중심성(life-centered)을 지향한다. 성인학습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적합한 단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활 현장 자체이며 학과 과목이 아니다. 셋째, 경험은 성인학습을 위한 가장 풍부한 학습자원이다. 성인교육의 핵심적 방법론은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에 의존한다. 넷째, 성인은 그들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간다(self-directing).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의 지식을 성인학습자에게 전수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기보다 성인학습자들과 함께 문제를 탐구해 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인학습자의 개인차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확대된다. 따라서 성인교육은 성인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양식, 시간, 장소, 그리고 학습속도가 만들어내는 개인차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한편 성인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로서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농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교육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강대구, 2004; 마상진·김영생, 2005; 정철영·이용환·나승일, 2002; 신익식, 2002; 정철영, 2002; 김재기, 1999; 이영대, 1993; 윤호섭, 1992; 정명채, 1991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정부 혹은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성인학습자로서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농업인의 학습현상 및 학습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과정을 학습의 관점에서 구명한 종단적 연구, 농업인과 타직종 구성원 간 학습양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 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인도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농업인도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상황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로 인해 학습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교수법 또는 학습결과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인학습자로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학습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성과에 대한 접근방법은 아동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학습자로서 농업인은 학습주의,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방법의 학습, 경험학습, 전환학습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해 나가며, 학습에 대한 주체성, 능동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기주도성, 내재적 동기,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생활문제중심, 자기확신, 그리고 자기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농업인의 교육요구 및 학습적 특성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농업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성별은 여성이 77명으로 응답자의 13.6%였으며, 남성이 488명으로 86.4%였다(<표 12> 참조).

<표 12> 농업인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	백분율
여성	77	13.6
남성	488	86.4
합계	565	100.0

결측값: 7

농업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은 50대가 190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32.3%), 60대(15.2%), 30대(9.7%)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농업인 교육기관을 통한 간접조사의 경우, 40대가 37.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 33.5%, 30대 13.2%, 60대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조사 중 도시 인근인 남양주 농업인의 응답자 연령을 보면, 50대가 38.4%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40대 36.0%, 60대 20.9%, 30대 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조사 중 농촌지역인 홍천 농업인의 응답자 연령을 보면, 60대가 32.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70대 25.9%, 50대 25.0%, 40대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간접조사에서의 응답자의 연령층이 낮았으며, 직접조사 중 남양주 그리고 홍천으로 순으로 연령층이 낮았다(<표 8> 참조).

<표 13> 농업인 응답자의 설문조사 형태 및 지역에 따른 연령

구분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직접 조사	남양주	0 (.0%)	3 (3.5%)	31 (36.0%)	33 (38.4%)	18 (20.9%)	1 (1.2%)	86 (100.0%)
	홍천	0 (.0%)	4 (3.4%)	15 (12.9%)	29 (25.0%)	38 (32.8%)	30 (25.9%)	116 (100.0%)
간접 조사	농업인 기관	17 (4.7%)	48 (13.2%)	137 (37.5%)	128 (35.1%)	30 (8.2%)	5 (1.4%)	365 (100.0%)
합계		17 (3.0%)	55 (9.7%)	183 (32.3%)	190 (33.5%)	86 (15.2%)	36 (6.3%)	567 (100.0%)

$\chi^2 = 166.945^{***}$, 결측값: 5

농업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영농기간은 11~20년이 156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21~30년(25.9%), 31년 이상(24.8%), 10년 이하(21.2%)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농업인 교육기관을 통한 간접조사의 경우, 11~20년이 30.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21~30년 28.5%, 10년 이하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조사 중 도시 인근인 남양주 농업인의 영농기간을 보면, 11~20년이 37.6%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10년 이하가 22.4%, 31년 이상이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조사 중 농촌지역인 홍천 농업인의 응답자 영농기간을 보면, 31년 이상이 50.5%로 가장 비율이 높아, 간접조사 및 직접조사 중 남양주와 무척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21~30년 22.9%, 10년 이하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농업인 응답자의 설문조사 형태 및 지역에 따른 영농기간

구분		영농기간대				전체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직접조사	남양주	19 (22.4%)	32 (37.6%)	16 (18.8%)	18 (21.2%)	85 (15.3%)
	홍천	16 (14.7%)	13 (11.9%)	25 (22.9%)	55 (50.5%)	109 (19.6%)
간접조사	농업인 기관	83 (22.9%)	111 (30.7%)	103 (28.5%)	65 (18.0%)	362 (65.1%)
합계		118 (21.2%)	156 (28.1%)	144 (25.9%)	138 (24.8%)	556 (100%)

$\chi^2 = 55.636^{***}$, 결측값: 16

농업인 응답자의 영농작목을 보면, ‘벼’가 62.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채소 49.6%, 전작 22.6%, 축산 21.7%, 특용작물 13.7%, 과수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농업인 응답자의 영농작목

영농작목	빈도	백분율(%)
벼	349	62.2
전작	127	22.6
특용작물	77	13.7
채소	278	49.6
화훼	25	4.5
과수	57	10.2
축산	122	21.7
버섯	24	4.3
기타	11	2.0
합계	1,070	190.7

n=561, 중복응답

다른 농민과 비교할 때 응답자의 영농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농업경영 능력은 보통이 63.7%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응답(높은 편, 매우 높은

편)이 21.9%로 부정적인 응답(낮은 편, 매우 낮은 편) 14.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물생산(가축사육)기술과 지식 수준도 보통이 63.0%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응답(높은 편, 매우 높은 편)이 24.5%로 부정적인 응답(낮은 편, 매우 낮은 편) 1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영농기반규모는 보통이 52.0%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응답(적은 편, 매우 적은 편)이 28.6%로 긍정적인 응답(많은 편, 매우 많은 편) 19.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산물 판매액 규모도 보통이 54.5%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응답(적은 편, 매우 적은 편)이 26.9%로 긍정적인 응답(높은 편, 매우 높은 편) 1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다른 농민과 비교할 때 응답자의 영농수준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낮음 (매우 적음)	낮음 (적음)	보통	높음 (많음)	매우 높음 (매우 많음)	합계
농업경영능력 수준	20 (3.6)	61 (10.9)	358 (63.7)	113 (20.1)	10 (1.8)	562 (100.0)
작물생산(가축사육) 기술과 지식 수준	12 (2.2)	56 (10.3)	344 (63.0)	130 (23.8)	4 (0.7)	546 (100.0)
영농기반규모	23 (4.1)	138 (24.5)	293 (52.0)	103 (18.3)	6 (1.1)	563 (100.0)
농산물 판매액 규모	27 (4.8)	124 (22.1)	306 (54.5)	102 (18.2)	2 (0.4)	561 (100.0)

2. 농업인 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가. 농업인 교육에 대한 평가

기존 농업인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실제 영농생활에서의 교육효과성, 전문가와의 인맥 형성 및 추후 기술정보 교류 활동에 대한 기여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측면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농업인들의 41.8%(228명)는 농업인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61.9%(338명)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들이 전문농업인, 전문 강사 등과의 인맥 형성 및 추후 기술정보 교류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농업인들의 46.1%(248명)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50.4%(275명)의 농업인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표 17> 기존 농업인 교육에 대한 평가

평가 항목	긍정적 응답
농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545)	228명(41.8%)
실제 영농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인식(n=546)	338명(61.9%)
전문가와와의 인맥 형성 및 추후 기술정보 교류 활동에 대한 기여도(n=538)	248명(46.1%)
실제 소득증대 기여에 대한 인식(n=545)	275명(50.4%)

나. 교육 참여 저해 요인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받아본 영농 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 ‘교육훈련 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전체 응답의 37.0%). 다음으로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30.6%), 교육훈련 홍보 부족(28.7%),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24.9%), 교육훈련의 시기와 기간 부적절(22.3%),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미흡(21.9%),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문제(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그리고 농업인들이 지난 3년간 받았던 교육훈련 횟수를 보면, 5회 이하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10회가 32.2%, 11~15회가 6.8%로 나타났다. 한편 16~20회, 21회 이상 참여한 농업인은 각각 4.2%였다(<표 19> 참조). 즉,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1년에 3회 이하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18> 교육훈련의 미흡한 점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훈련 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187	37.0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	155	30.6
교육훈련 홍보 부족	145	28.7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126	24.9
교육훈련의 시기와 기간 부적절	113	22.3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미흡	111	21.9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문제	107	21.1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81	16.0
교육훈련 목표 불명확	72	14.2
교육훈련 재정 부족	67	13.2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 부족	42	8.3
교육대상자 사전요구조사 체제 미흡	41	8.1
교육훈련 시설과 장비 낙후	34	6.7
교육훈련 평가방식의 부적절성	28	5.5
기관의 운영미숙(전문성 부족)	19	3.8
합계	506	100.0

*: 중복응답

<표 IV-19> 농업인들이 지난 3년간 받았던 교육훈련 횟수

구분	빈도*	백분율(%)
5회 이하	278	52.7
6-10회	170	32.2
11-15회	36	6.8
16-20회	22	4.2
21회 이상	22	4.2
합계	528	100.0

*: 중복응답

한편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보면,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21.1%, ‘참여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0.9%, ‘교육에 대한 안내정보가 없어서’ 20.6%, ‘내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17.6%,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즉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

소의 문제, 교육효과성에 대한 회의, 정보의 부재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서	164	44.4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78	21.1
참여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77	20.9
교육에 대한 안내정보가 없어서	76	20.6
내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65	17.6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40	10.8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25	6.8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19	5.1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18	4.9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3	3.5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낙후된 시설 때문에	10	2.7
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8	2.2
기타	8	2.2
합계	369	100.0

*: 중복응답

3. 농업인의 학습적 특성

가. 교육 참여 목적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한 목적을 보면,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과 관련된 생산기술 및 유통, 가공처리 기술 등을 배우고 싶어서’ 55.2%, ‘영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인간관계를 쌓고 싶어서’ 45.5%, ‘영농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 폭넓은 교양적 지식을 얻고 싶어서’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즉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정보 및 지식을 얻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21> 교육훈련 참여 목적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330	58.9
영농과 관련된 생산기술 및 유통, 가공처리 기술 등을 배우고 싶어서	309	55.2
영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인간관계를 쌓고 싶어서	255	45.5
영농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 폭넓은 교양적 지식을 얻고 싶어서	131	23.4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74	13.2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61	10.9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41	7.3
각종 기관에서 교육 참여를 강조해서	36	6.4
다른 사람이 참여 하니까	20	3.6
별다른 목적 없이	5	0.9
기타	4	0.7
합계	560	100.0

*: 중복응답

나. 학습내용 요구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 즉 학습이 필요한 분야로는 ‘마케팅’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보획득’ 31.3%, ‘영농일손관리’ 30.6%, ‘경영관리’ 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학습요구)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마케팅	182	33.3
정보획득	171	31.3
영농일손관리	167	30.6
경영관리	148	27.1
사업기반조성	124	22.7
작물재배기술	98	17.9
영농계획	97	17.8
농기계 및 농장시설 관리	89	16.3
생산관리	52	9.5
가족사육기술	45	8.2
사업검토 및 재계획	37	6.8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16	2.9
기타	7	1.3
합계	546	100.0

*: 중복응답

다. 학습형태 요구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습방식을 보면, 주변의 전문가(이웃, 농촌지도사, 대학 교수 등)에게 묻는 방법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47.1%, 작목반이 팀이 되어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는 방법 4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방법은 11.1%에 불과했다(<표 23> 참조).

<표 23>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습방식

구분	빈도*	백분율(%)
주변의 전문가(이웃, 농촌지도사, 대학 교수 등)에게 묻는 방법	281	52.1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254	47.1
작목반이 팀이 되어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는 방법	225	41.7
각종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방법	60	11.1
독서 등을 통하여 자기 혼자 학습하는 방법	47	8.7
기타	4	0.7
합계	539	100.0

*: 중복응답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학습인원은 20~40명 정도의 '중규모'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38.3%, 1:1의 '개별학습'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4>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학습인원

구분	빈도	백분율(%)
개별(1:1)	48	10.5
소규모(10명 내외)	176	38.3
중규모(20~40명)	203	44.2
대규모(50명 이상)	32	7.0
합계	459	100.0

라.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농업인들의 평소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는 신문 및 방송, 우편 홍보물, 이메일,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등과 함께 농업관련 공무원이나 다른 농민들을 통해 얻는다. 이중에 프로그램 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경로는 농업관련 기관 공무원(전체 응답의 59.2%)이었고, 그 다음으로 우편 발송된 홍보물(26.3%), 신문 및 방송(25.0%), 다른 농민(18.1%), 인터넷이나 이메일(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표 25>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구분	빈도*	백분율(%)
농업관련기관 공무원	326	59.2
우편 발송된 홍보물	145	26.3
신문이나 방송	138	25.0
인터넷이나 이메일	79	14.3
다른 농민	100	18.1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37	6.7
기타	11	2.0
합계	836	100.0

*: 중복응답

IV. 논의: 농업인 학습지원시스템 개발방안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되는 경영일반 및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구조화되고 창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어지는 지식만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여 공유할 수 있는 학습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인 학습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농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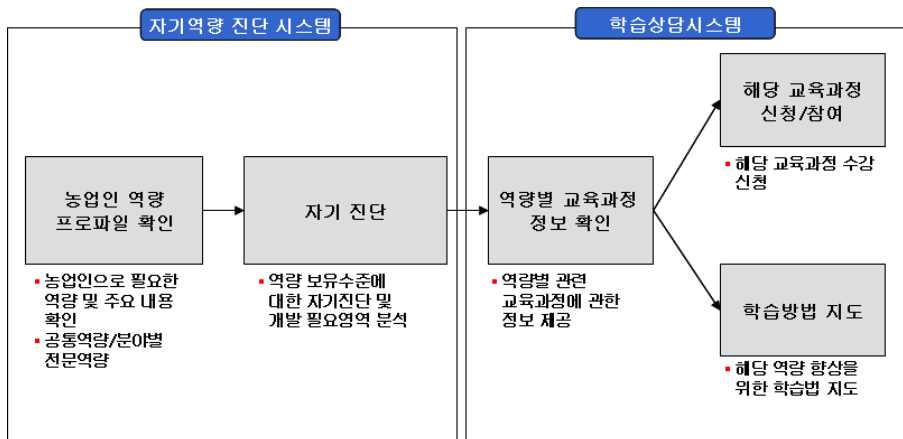
그리고 농업인들은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주변 전문가(이웃, 농촌지도사, 대학교수 등)에게 묻는 것을 더욱 선호하였다. 그리고 작목반이 팀이 되어 학습하는 것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들이 기존의 형식적 교육에 대한 참여보다 비형식적 학습을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 혹은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농업인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교육에 대한 안내정보가 없어서(20.6%)’,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10.8%)’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농업인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개별 및 팀 단위 농업인에게 적합한 학습내용 및 정보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습지원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인 역량 모델에 근거하여,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역량을 규명하여 ‘농업인 자기역량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인의 발달단계를 기초, 향상, 전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농업교육정보 및 작목별 교육내용을 제공해

야 한다. 한편, 영농과 생활이 일치되어 있는 특수한 농업인의 삶을 고려하여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일컫는 생애능력 중심으로 농업인 역량을 구명하는 접근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타인지적인 개념으로서의 농업인의 학습역량을 진단하는 시스템 역시 자기진단 시스템 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그림 2] 참조).

‘농업인 자기역량 진단시스템’은 농림부 홈페이지 또는 AEIS에 탑재하여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일선 교육기관 및 시도기관에서도 활용하여 농업인의 교육 컨설팅(관리)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의 발달단계를 측정하여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교육 후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후속 교육정보 및 교육내용 제공)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Consultant를 확보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다. 학습상담 Consultant는 농업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방법,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한 정보 및 농업인의 발달단계 및 역량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학습상담 컨설팅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농업인 교육이력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학습상담 Consultant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전문적인 농업교육 Consulting 업체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농업인 학습지원 시스템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② 농업인력의 고령화, ③ 농업인력의 부녀화, ④ 도시노동자와의 소득격차 심화, ⑤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 미흡 등이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인적·물적·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농업인들은 농업교육의 문제점으로는 ① 실습 기회 부족, ②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 ③ 교육훈련 홍보 부족, ④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⑤ 교육훈련 시기와 기간 부적절, ⑥ 사후관리 체제 미흡, ⑦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즉,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비효과적인 농업인 교육훈련 과정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보통수준의 농업교육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업인들의 교육저해 요인을 보면, ① 교육훈련 참여 시간 부족, ② 교육훈련 장소의 거리, ③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④ 교육 안내 정보 부족, ⑤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농업교육의 패러다임은 지식을 전달받고 구성하는 수요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중시하고, 개방적이고 연계된 통합구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인 교육훈련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인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농업인들은 주로 경영지식, 생산·유통·가공 기술 및 영농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농업인들의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학습요구)는 마케팅, 정보획득, 영농일손관리, 경영관리, 사업기반 조성 등 주로 경영일반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내용 영역에서는 경영일반 및 생산·유통·가공 기술에 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적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농업인은 주변의 전문가에게 묻는 학습방법,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작목반이 팀이 되어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주로 선호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학습인원은 20~40명 정도의 '중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10명 내외의 소규모, 개별 순으로 선호하였다. 따라서 농업인 개인에 대한 학습컨설팅 뿐만 아니라 작목반 혹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에 대한 학습컨설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경로는 농업관련 기관 공무원, 우편 발송된 홍보물, 신문 및 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정보를 전파하고 공유시키기 위한 매개물로서 이러한 수단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기존의 정부 혹은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농업인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개별 및 팀 단위 농업인에게 적합한 학습내용 및 정보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습지원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2. 제언

첫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인력 학습지원 방안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인력 학습지원의 주체 및 대상, 학습내용 및 방법, 교육기관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등이 이러한 작업에 해당된다.

둘째, 농업교육의 학문 및 실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농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특히 농업인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농업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농업교육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및 지원체계가 보다 현실적,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 학습지원을 위한 정부에서는 바우처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도 않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3월부터 12월 초까지인데 이는 사실상 농민들이 가장 많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겨울이 제외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농업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학습형태 및 특성을 우선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정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농촌지도사들의 직업적 능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 패러다임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습을 지원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농업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실제 개별 및 팀 단위의 농업인들이 어떠한 학습을 필요로 하며,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학습방법 및 교육기관 등)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학습지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구. (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육성 방안. 농림부.
- 김종서, 황종건, 김신일, 한승희. (2004).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김진모. (2006).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 김재기. (1999). 대만의 농민 후계자 및 농업인력 양성계획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6(1), 43-54.
- 농림부(2004).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 농림부.
- 농림부. (2005). 2005년 주요업무 계획. [On-line]. <http://www.maf.go.kr>.
- 농림부. (2006). 농업통계. [On-line]. <http://www.maf.go.kr>.
- 농촌진흥청. (1998). 농촌진흥사업통계자료. 농촌진흥청.
- 마상진, 김영생. (2005). 농업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익식. (2002). 농업인력 육성교육의 효율화 방안: 농학계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20(1), 85-106.
- 이영대, 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대. (1993).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 및 도도부현 농업자대학교의
운영사례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4), 39-47.
-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허영준. (2001).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3(1), 1-24.
- 이용환, 김성수, 김수옥, 조영철, 이종만, 서우석, 강대구, 송용섭, 나승일, 김진모.
(2004). 전환기 농업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3),
1-22.
- 정명채. (1991). 농어민연금제도 수립방안 : 농어민연금제도의 필요성,
한국농촌사회학회, 1, 109-118.
- 정상택. (200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습자의 교육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4), 1-24.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 (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방안. 서울대학교.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On-line]. Available: <http://www.nso.go.kr/>

통계청.(2005). 농업기본통계조사. [On-line]. Available: <http://www.nso.go.kr/>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0). *Sustain-able agriculture in a globalized
economy*. Geneva: ILO.

Jarvis, P. (1985). *The Sociolog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London:
Croom Helm.

Kuhn, T. S.(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3rd ed.)*.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nowles, M. S. & Associates.(1984). *Andragogy in Ac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Merriam, S. B & R. G. Brockett(1997).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 introduc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OECD. (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http://www.oecd.org>

SDRE, FAO. (1998).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and Opportunity*.
[On-line]. <http://www.fao.org/sd/ EXdirect/EXre0003.htm>.